

# “운암은 좌파 아닌 불교독립운동가”

## 운암 김성숙 선생 사상 조명하는 자리 열려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낸 독립운동가 운암 김성숙(태허 스님) 선생의 항일운동 근저에는 불교의 회통사상이 담겨 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8·15광복절을 앞두고 운암 김성숙선생 기념사업회(회장 민성진)는 8월 12일 한국 불교문화역사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운암 김성숙 선생의 생애와 사상 재조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차차석 동방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성숙의 불교사상과 그 변용’이란

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단체에서 활동했다”며 “민본의 민주공화국에 대한 꿈은 좌와 우로 편중되지 않는 그의 중도적 신념을 말한다. 그는 이를 통해 대립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회통을 지향했다”고 평가했다.

차 교수는 “그의 정치사상에는 불교적 가치가 강하게 내재돼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운암 김성숙 선생의 일생은 불교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평생을 헌신했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용운 한국의국어대 안중근 책임 연구원은 “운암 김성숙 선생은 민주주의로 좌우파의 중도적 화합을 꾀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파 위주의 정부하에서도 좌우파의 대동단결을 이끌고자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신 연구원은 “1945년 8월 이후 민족주의 좌우세력이 결합된 중경임정과 같은 단체가 정국을 장악하고 운암 김성숙 선생과 같은 이들이 주도했다면 6·25전쟁의 비극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성진 기념사업회 회장은 “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서 광복에 헌신하고 광복 후 조국 통일을 위해 고군분투하신 진정한 독립 애국지사였다”고 평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치사에서 “태허 스님이 광복을 위해 바친 삶과 정신이 평화적인 통일국가 건설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운암 김성숙 선생 추모제에서 풍선사 조실 월운 스님이 추도사를 낭독하고 있다.

### 운암 김성숙 선생은?

운암(雲巖) 김성숙(金星淑 · 1898~1969)은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역임한 독립투사였다.

불교계에서는 봉선사 태허(太虛) 스님으로 잘 알려져 있는 운암 김성숙 선생은 19세 때 용문사에서 출가했으며 25세 때 스님 신분으로 중국 북경에 유학한 뒤 중국 각지를 돌며 본격적인 항일투쟁을 전개했다.

“변법전증”, “일본경제사론” 등 20여권의 책을 번역·저술했고, 김산(장지락) 등 혁명가들의 리더 역할을 했

며, 조선의열단 선전부장, 조선의용대 정치부장, 임시정부 내무차장, 외교연구위원, 국무위원을 지내며 조국해방을 위해 앞장섰다.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과 5·16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혁신정당의 수장으로 활약해 정권의 탄압을 받았으며 1969년 4월 12일 피우정(避雨亭)에서 서거했다.

동아일보에 서거 후인 4월 15일자 지면에서 “애국지사 고(故) 김성숙 운, 중태 이르도록 병원 한 번 못간 가난, 유산은 단간접 한 채, 퇴원비 만원 없어 허덕여”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낼 정도로 현실에서 궁핍한 삶을 살았다.

### 무저항 비폭력주의

### 민본 민주공화국 꿈꿔

### 공산 아닌 민주주의자

### 그 기반에는 불교중도사상

발제에서 “태허 스님의 정치사상에는 불교 지배사상에 입각한 원용사상이 담겨 있다”며 “그의 정치사상을 면밀히 들여다 보면 무저항·비폭력주의였다”고 말했다.

봉선사로 출가한 운암 김성숙 선생은 당시 손병희 선생과 만해 한용운 스님, 불교계 독립운동가 김법린 선생을 사찰에서 만나며 사상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 교수는 운암 김성숙 선생은 불교에 입각한 중도적 정치신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운암 김성숙 선생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닌 그저 가난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 선학과 교수

## 풍성상주

더위가 치성하면 못내 그리운 것이 시원한 한줄기 바람이다. 함축선 하나쯤 들고 다니면 더위가 해결되던 시절도 있었지만 요즘은 그걸로 직성이 풀리지 않는다. 손에는 얼음이 담긴 컵을 들고 주변엔 선풍기나 에어컨이 필수인 세상이 되었다. 현대인에게 뭔가 감내(堪耐) 한다는 것은 타인의 일이다. 어디 덥고 추운 것뿐이라. 온갖 감정도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과 같다.

영화 상영되기 전에 백색 천에는 한동안 어떠한 영상물도 보이지 않는다. 한참 지나야 영화가 상영된다. 그 내 용에는 사랑과 질투, 용기와 비굴, 좌절과 승리 등 다양한 내용이 마음에 감동시켜 영화에 몰입하게 한다. 만약 관객이 영화 내용에 사로잡혀 일상생활을 한다면 픽이나 불편할 일이다. 그러나 영화가 끝난 뒤 조금 전의 상황은 모두 지워지고 백색의 천만 남는다. 내 생각이 작용하면 삼라만상이 전개되고 내 생각이 쉬면 주변 모두가 종식되고 만다. 생각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공평무사 하다. 아마 자유방임주의자가 아닐까 한다.

마조의 법을 이은 마곡보철(麻谷寶徹) 선사자가 있다. 어느 여름날이었다. 찌는 듯 더운 날 밤에서 한 사람이 부채질을 하며 더위를 쫓고 있었다. 거기에 한 객승이 방문하였다. 잠깐 수인사를 한 후, 그 객승은 돌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바람의 본질은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부는 것이 아닙니까?”

“암, 그렇고 말고.”

“그런데 보철 선사께서는 새삼스러이 부채를 사용하십니까?”

질문 끝에 선사는 자세를 바꾸지 않고 부채를 부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객승은 뭔가 느낀 바가 있어 마음 속 깊이 경배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오동화원(五燈會元)> 보철장에 나오는 내용이다.

객승이 느낀 것은 무엇일까. 바람의 본성은 어디에도 있는 것이다. 더워서 시원한 바람을 원하면 어느 곳에도 시원한 바람은 있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바람은 어느 곳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바람을 원한다고 해서 생 각만하면 바람이 곧 바로 손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부채를 들고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어느 탐구심 강렬한 사람

이 바람의 모습을 확연히 보기 위하여 바람을 멈추게 하면 그 때는 이미 바람쯤 들고 다니면 더위가 해결되던 시절도 있었지만 요즘은 그걸로 직성이 풀리지 않는다. 손에는 얼음이 담긴 컵을 들고 주변엔 선풍기나 에어컨이 필수인 세상이 되었다. 현대인에게 뭔가 감내(堪耐) 한다는 것은 타인의 일이다. 어디 덥고 추운 것뿐이라. 온갖 감정도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과 같다.

‘풍성상주(風性常住)’라는 공안이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있다. 사람의 마음에 본래 내재해 있는 불성(佛性)은 사람마다 수행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고, 신체 가운데에도 있는 것이다. 수행 과정에 나타나는 일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제일 떨치기 어려운 것이 번뇌가 아닐까 한다. 번뇌는 꼭 버려야만 하는 쓰레기 같은 것만은 아니다. 번뇌도 소중한 것이라고 본다. 마치 굴 껍질 속에 성가신 목사가 아름답고 값진 진주로 변하는 것처럼 말이다.

‘생사 즉 역반이요, 번뇌 즉 보리’라는 말도 모두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번뇌를 소멸하고 나야 만이 보리가 쉬면 주변 모두가 종식되고 만다. 생각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공평무사 하다. 아마 자유방임주의자가 아닐까 한다.

마조의 법을 이은 마곡보철(麻谷寶徹) 선사자가 있다. 어느 여름날이었다. 찌는 듯 더운 날 밤에서 한 사람이 부채질을 하며 더위를 쫓고 있었다. 거기에 한 객승이 방문하였다. 잠깐 수인사를 한 후, 그 객승은 돌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바람의 본질은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부는 것이 아닙니까?”

“암, 그렇고 말고.”

“그런데 보철 선사께서는 새삼스러이 부채를 사용하십니까?”

## 비구구족계 근간인 수계의범 나왔다

### 정진일 박사 ‘유부갈마의범’ 펴내

불교에 귀의한 자가 출가해도 후 비구계를 수지하는 의식을 명기해 불교의 근간 전적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비구구족계 수계의범이 독일어로 출간됐다.

정진일(괴팅겐학술원 산스크리트 불교사전편찬소 연구원) 박사는 최근 <근본설 일체유부출가수근원갈마의범(根本說一切有部出家授近圓羯磨儀範)>을 복원해 펴냈다.

<근본설일체유부출가수근원갈마의범>은 근본설일체유부에 속하는 것으로 범어, 한문, 티베트어 등 3가지 언어로 전승돼 왔다. 이 문헌은 단일 전적 보존의 경우와 갈마본 일부로 보존되는 경우가 있다.

정 박사는 산스크리트본, 티베트본, 두 종류의 한역본, 범어본의 단어색인, 내용



활영된 불교전적 사진을 근거에 두고 있다. 단편적으로 보존된 산스크리트본을 구절을 비교 대조해 복원했다. 특히 지난날 드에 의한 첫 간행본의 오류를 수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덕현 기자

일말 및 난해한 용어의 범어, 티베트어, 한문 대조표까지 수록하고 있다. 산스크리트본은 1930년대 인도 라홀 상크리트 야안에 의해 티베트에서

### <학술단신>

#### ■ 불교학연구회

가을논문발표회 발표신청 공고 불교학연구회(회장 박경준)는 9월 25일 동국대 다량관 세미나실에서 가을논문발표회를 개최한다. 가을논문발표회 발표신청은 박사과정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8월 30일까지 논문발표계획서를 학회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며 된다. (ksbs.re.kr)

노덕현 기자



2011년 불교학연구회 봄 논문 발표회

#### ■ 문화재청

전통문화 체험 및 유적 답사 문화재청(청장 최광식)은 8월 6~7일 부여 한국전통문화학교에서 ‘2011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대잔치’를 개최했다. 전국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행사에는 전국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과 지도교사 등 200여 명이 참가해 강강술래, 탈춤배우기, 풍물배우기 등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7일에는 백제문화단지에서 비롯해 사적 제4호 부소산성, 사적 제135호 궁남지 등 주요 문화재 답사도 진행됐다.

문화재청은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을 전국 초·중·고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서 총 142개 단체(128개 학교) 5058명이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 제78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석, 쇠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향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1년 8월 중

◆ 개강일시 : 2011년 8월.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약간명)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중급 교육과정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장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뒤편 ☎ 02)741-0495, 0496

#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 단기속성 3개월 과정 (42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기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1년 9월 5일(월요일) 오후 3시 (목탁지침)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5시
- 통신교육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CD우송)
- 강의장소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2. 교육내용

-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중성 등)
-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 ③ 현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불공시식, 관음, 지장, 신중청 등)
- ④ 제 의식 편 (천도제, 49제,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방생의식 등)
-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등)

#### 3. 신청방법 : 전화접수 또는 방문접수 (우편, 팩스 접수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한선빌딩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